새롭게 기리는 5·18…"오월텐트촌서 민주주의 역사 즐겼다"

전국 체험객 예약 문의 빗발쳐
오월광주 즐기려는 캠핑족 북적
풍물패 공연·체험행사 등 인기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처음 마련된 오월텐트촌은 5·18의 역사적 의미를 광주 민주화의 상징적 공간인 금남로 도심 한 복판에서 캠핑을 하며 만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약부터 체험객들의 문의가 빗발친 인기 행사였다.

민주주의 성지에서 1박 2일로 5·18 전야제를 즐기며 색다른 방식으로 '오월 광주'의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날 중앙초에서 운영된 '오월 텐트촌'은 입촌 시각인 오후 2시 전부터 전국에서 몰려온 '민주주의 역사 즐기기' 캠핑족들로 북적였다. 특히 자녀들과 오월 광주를 체험하고 싶은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다.

참가자들은 형형색색의 캠핑카트를 끌고 텐트촌을 찾았고 초록빛 인조잔디가 깔린 중앙초 운동장은 파란색, 주황색 텐트로 화려하게 꾸며졌다. 오후 6시부터 텐트촌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텐트촌을 찾은 어린인들은 비눗방울을 불며 텐트가 놓인 길목 사이사이를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삼삼오오 모여 난장과 전야제에서 본 장면들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시민난장 행사를 즐긴 캠핑 신청자들이 텐트촌에 도착하면서 146개 팀 351명이 들어간 텐트가 불을 밝혔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숙박을 하는 공간인 점을 감안, 안전 문제를 고려해 외출·복귀할 때에도 도장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했다.

텐트에 저마다 짐을 풀고 '광주 맛집'을 찾아 금남로와 동명동 거리로 이동하는 이용객들도 많았으며 상추튀김, 치킨, 피자 등 배달 음식을 시켜 함께 나눠먹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양승환(41·광산구 첨단)씨는 딸 친구네 가족과 함께 찾았다. 양씨는 "오월 텐트촌이 마련된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에게 이곳의 의미를 직접 보여주고 싶어 같이 왔다"며 "광주역에서 도청까지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행진을 함께 걸었고, 중간에 주먹밥도 나눠 먹었다. 오늘의 경험이 언젠가는 기억에 남을 거라 믿는다"고 했다.

수원에서 동료와 함께 오월 텐트촌을 찾은 조영미(여·58)씨는 "아침 일찍부터 4시간 운전해서 왔다. 오월 텐트촌은 친구들과 광주에 대한 추억을 더 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했다.

조씨는 "광주는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는 있었는데 오기가 참 두려웠다. 무거운 마음에 한동안 찾지 못 했다가 이제는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마음으로 왔다"며 "오월 광주의 하늘은 여전히 푸르더라. 옛날 추억이 떠오른다"고 전했다.

풍물패 공연 '오월길맞이 굿'에 참여한 뒤 텐트촌에서 밤을 보내게 된 목포대학교 재학생 박수진(여·20)씨는 금남로 한복판에 아지트가 생겼다며 설렘을 드러냈다.

박씨는 "작년에도 풍물패로 참여했는데 올해는 오월 텐트촌에서 숙박까지 하니까 전야제 열기를 다음날까지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게 된 것 같다"면서 "앞으로는 기억을 넘어 직접 참여하고, 축제처럼 즐기며 5월 광주를 기리는 방식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일본 NHK, 광주일보 찾아 5·18 심층 취재

"광주일보는 '역사 아는 신문'…민주주의 지키는 모습 자랑스러워"

한강 작가 '소년이 온다' 통해
5·18 민주화운동 새롭게 인식
광주에 5·18 흔적 선명히 남아
트라우마에도 계엄 선포 안믿겨

최권일(왼쪽) 광주일보 편집국장이 18일 광주일보사 편집국을 방문한 요시즈카 미노리(오른쪽에서 두번째) 기자 등 NHK 취재진 3명과 대화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일본 공영방송 NHK 취재진이 18일 광주일보사를 방문해 12·3 비상계엄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등을 집중 취재했다.

요시즈카 미노리 기자 등 NHK 취재진 3명은 이날 광주일보사 편집국을 방문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에 따른 지역 민심과 80년 5·18 당시 상황으로 본 비상계엄의 위험성 등을 취재했다.

이들은 또 1980년 비상계엄 확대로 광주시민이 항거했던 5·18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전일빌딩 245와 5·18 기록관 등 5·18 사적지를 방문해 당시의 치열했던 항쟁의 역사를 살펴보기도 했다.

더불어 1980년 5·18 당시 광주일보(옛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의 사직서 제출과 계엄군의 기사 검열과 삭제 등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계엄령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부터 탄핵 과정을 담은 광주일보 호외 등을 접한 뒤 '역사를 아는 지방지'라고 평가했다.

NHK 취재진들은 오는 6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맞아 '갈등과 분열의 대한민국'을 치재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가, 5·18 기간을 고려해 광주를 방문했다.

광주일보를 방문한 요시즈카 미노리 기자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보고 '광주 사건'(일본 표현)을 처음 알게 됐다"며 "그런데도 12·3 비상계엄 당시 실감이 안 났고, 무슨 일인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밝혔다.

요시즈카 기자는 "광주에서 5·18 흔적이 선명히 남아있는 것을 보고 '5·18은 광주가 소중히 간직해왔던 역사'라는 걸 느꼈다"며 "대한민국에 이런 역사의 트라우마가 있는데도 지난해 비상계엄이 다시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광주일보가 '역사를 아는' 지방지기 때문에 서울보다 먼저 위험성을 살피고 호외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외치는 기자들이 있다는 것이 같은 언론사 기자로서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계엄사태·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에 5·18 관심 생겨"

오월어머니들의 주먹밥 부스 인기…평화·나눔 행사 돋보여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일해공원 폐지 등 각계 목소리 높여

전야제·기념식 이모저모

◇각계 목소리 분출구 된 민주묘지=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는 올해도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성토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3개 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5·18민주묘지 정문 인근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산화하거나 다친 이들을 민주유공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로 승격해 달라는 취지다.

경남 합천군 군민들로 구성된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 회원들은 민주의 문 앞에서 전두환 호를 따라 이름을 지은 일해공원(이른바 전두환 공원)의 명칭을 폐지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과 현수막 등을 들고 민주의문 인근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다.

보수단체 집회도 여전했다. 민주묘지 정문 인근에 보수 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집회를 열고, 오전 8시 50분께에는 한 여성이 '5·18 헌법 수록 절대 반대 국민 명령'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해 기념식장을 찾은 광주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계엄 보고, 한강 따라 광주 왔어요=올해는 12·3 비상계엄 사태,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등으로 5·18에 대한 관심이 생겨 광주를 방문한 이들이 부쩍 늘었다.

국립5·18민주묘지에 따르면 올해 5월 1~17일 사이 참배객 13만 828명이 방문했다. 전년 같은 기간 10만 2207명에 비해 28% 급증한 것이다.

참배객들은 한 목소리로 "지난 계엄이 5·18 광주를 떠오르게 했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묘지에서 만난 윤민재(여·20·춘천)씨는 "12·3 비상계엄이 터진 이후, 지난 5개월간 민중이 거리로 나가 항쟁을 하면서 결국 승리하는 역사를 지켜봤다"며 "직접 이런 일을 겪으면서 5·18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윤상원 열사의 말처럼 '내일의 역사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고 기억할 수 있도록 민주화의 길을 잘 이어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홍순대(59·서울)씨는 "민주묘지는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인데, 올해는 12·3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온 거라 의미가 남다르다"며 "계엄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1980년에 이어 또 발생한 것이 비극적이다. 피로 물든 역사가 다시 또 반복될 뻔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에 묘지를 찾았다"고 했다.

◇주먹밥 나눔 부스 인기…곳곳서 음식 나눔='주먹밥 나눔 부스'는 17일 열린 5·18 전야제와 18일 정부기념식 양 쪽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었다.

오월어머니집 어머니들은 전야제에서 해마다 주먹밥 부스를 열어 왔는데,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1시간여만에 준비한 주먹밥이 동이 났다. 15kg짜리 주먹밥 24박스로 총 3000인분 주먹밥이 순식간에 바닥난 것이다. 전교조가 추가로 주먹밥을 공수해와 오후 4시 40분께 나눠주면서 시민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다.

올해는 주먹밥에 곁들이는 음식도 조금씩 변화했다. 전교조는 깻잎에 주먹밥을 싸 먹을 수 있도록 했고, 18일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와 (사)솔잎쉼터는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홍어무침, 편육을 곁들인 주먹밥을 나눠줘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전야제 행사에서는 '비건 감자튀김'과 붕어빵, 커피 등을 나눠주는 부스도 들어서 각 부스마다 30여명의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기도 했다.

◇상인 반발 때문에…1박 2일 전야제는 없던 일로=당초 1박 2일에 걸쳐 진행되기로 했던 5·18 전야제는 인근 상인회의 반발로 대폭 축소됐다.

제45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17일 전야제 행사를 밤 11시에 마치고,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금남로 일대의 부스 전체를 철거했다. 당초 1박 2일로 확장해 18일 밤 9시까지 시민난장 등 행사를 지속할 계획이었으나, 이는 5·18 민주광장과 5·18기록관 앞 도로 일부분에서만 한정적으로 진행됐다.

행사가 축소된 배경에는 충장로1·2·3가 상인회의 '상권 침해'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불경기로 상인들이 극도로 민감한 상태인데 이틀 연속으로 도로 통행을 차단하고 행사를 열 경우 충장로로 유입되는 손님이 줄어들게 돼 상인들에게 타격이 온다는 것이다.

행사위 관계자는 "향후 행사에 앞서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광주문화신협 이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